

암행순찰차·드론까지...추석 귀성길 교통사고 예방 특별관리

추석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 일평균 542만대

암행순찰차·드론 투입...사고다발지 순찰 강화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추석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연휴 기간 전국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차량 정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추석의 차량 통행량이 역대급일 것으로 전망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휴 전후 특별 교통관리에 돌입한다.

경찰은 1단계로 연휴 전인 오는 5~7일 전통 시장 등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2단계로 오는 8~12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고속도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합동해 암행순찰차 42대, 드론 10대를 투입하고, 사고 다발지점 30개소에서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825건으로, 1년 중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날로 나타났다. 연휴 전날의 평균 사망자 수도 평상시보다 40% 이상 증가한 14명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8시에 가장 자주 발생했고,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주로 일어났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

은 일평균 542만대로, 지난해보다 13.4% 늘어난 수치로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거리두기 폐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운전 중 조금이라도 졸리면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승호기자



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농어민 돕기 직거래장터

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농어민 돕기 직거래장터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집유기간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 50대 징역 2년...법정구속

혈중알콜 0.246%로 교통사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사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B(62·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우회전을 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B씨의 승용차 옆 부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46%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기간 또다시 상습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에 이르러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쓰레기 무단투기·과대포장 단속

환경부,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추진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 비상수거체계를 가동한다. 과대포장과 쓰레기 무단투기는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및 음식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 폐기물까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생활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해 쌓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를 확대 비치하고 공공선별장 운영도 늘린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한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은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문 포장재 등 재활용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해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임시보관장을 마련한다. 제지 제조사의 보관용량 확보를 위해 전국 4개 공공비축시설을 폐지 긴급 보

관시설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연휴 전후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는다.

불법투기와 과대포장에 대한 계도·단속도 나선다.

불법투기 대상은 휴가지 등 폐기물 상습투기 우려 지역과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해 환경신문고(☎128번) 또는 국민권의위원회(www.clean.go.kr)에 신고하면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체 추석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기준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스마트폰 앱인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은 실시간 답변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별 여건에 부합하는 특별수거대체를 수렴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상황을 집중 관리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